



프랑스 협조 기관
문화부
국립 영화와 영상 센터
교육, 청소년, 체육부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 여성으로서의 여정

힘든 시기, 방앗간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딸을 악마에게 판다. 순결함에 의해 보호된 딸은 악마를 피하지만, 두 손을 빼앗긴다.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소녀는 물의 여신, 친절환 정원사, 왕자를 만나 그의 성에서 살게 된다.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첫 장편 영화인 «손 없는 소녀»는 그림형제의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주인공인 소녀의 모험기를 다루고 있다. 탄생에서 젊은 여성이 되기까지, 소녀는 많은 시련을 겪는다. 소녀는 수많은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장소에서 도망치고, 자신의 욕망을 깨우치는 것까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다른 동화(그리고 영화) 속 여주인공의 특징과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손 없는 소녀»의 소녀는 타인 앞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해방을 찾는 게 아니다. 소녀가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는 소녀의 결단과 용기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장르 속 인물의 원형과 거리가 먼 소녀는 자신의 힘과 지능을 증명해 보이려는 반동적인 인물이 아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다. 도주 속에서 소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장소를 찾으려는 것뿐이다. 소녀의 여정은 진정으로 고독한 입문의 형태를 띤다. 입문은 인물의 감각에 가까운 미학을 탄생시키는 감독에 의해 연출된다.

● 홀로 작업하다

파리 국립장식예술학교(ENSAD)에서 공부한 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손 없는 소녀»를 제작하기 전, 여러 단편 영화를 연출했다. 10 년 전에 그는 이미 그림형제의 동화를 각색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다. 감독은 «손 없는 소녀»의 그림을 홀로 그렸다. 매우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15 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수 천장의 그림이 필요했다.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가 한 사람의 힘으로 제작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배경, 채색 등의 여러 단계에서 감독을 포함한 여러 팀이 함께 작업한다. 감독은 소녀가 영화 속에서 겪는 입문의 여정이 자신이 영화를 홀로 연출하면서 겪은 모험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야 그의 동료(편집, 음악, 배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독은 주로 홀로, 혹은 둘이서 작업하곤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그가 작업을 통제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한다. 감독은 시인 뤽 베나제(의성어와 음절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와 함께 단편 영화 시리즈를 연출했다. 그와의 만남은 미완의 형태, 색의 분출, 스케치 수준의 선, 분절된 몸과 형태를 좋아하는 세바스티앙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뤽 베나제의 시 또한 분해된 음절로 쓰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손 없는 소녀»는 모호한 시간 속에 있다. 이야기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어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상상력과 감정 및 오래되고 심오한 이야기의 표현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기억인 만큼, 중세라는 시대는 판타지 장르의 이야기에 적절하고, 영화의 낯선 이야기에 완벽하게 기여한다. 인물(역시 불분명하게 표현된)은 변신을 겪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진화하고, 행동, 외면, 성격을 바꾼다. 소녀라는 인물은 기준점을 찾기 어려운 시간의 혜택을 받는다. 여러 여정을 거치며 점점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영화,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디즈니 제작)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화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폭력과 잔혹함이 희석된다. «손 없는 소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감독은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없이도, 원작 동화의 어두운 면을 보존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냈고, 그 고통(신체적이고 정신적인)을 관객에게 그대로 느껴지도록 했다. 피로함, 배고픔, 눈물, 좌절... 원작의 가장 폭력적인 에피소드도 피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관객은 아버지가 도끼로 딸의 두 손을 절단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후, 소녀가 은신처 정원에서 씨앗을 심는 장면에서도, 잘린 손목에서 피가 분출된다...

소리, 매서운 바람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음향과 이미지 간의 창의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 동화를 각색하다

«손 없는 소녀»는 그림형제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인물을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물이 사는 장소인 숲, 성과 같은 곳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책을 읽을 때는 지문과 묘사가 배경을 구상하도록 도움을 준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림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하지만 «손 없는 소녀»에서 그림은 미완성적인 특징을 가진다. 배경뿐 아니라 인물 역시 관객의 상상력에 의해 보완될 여지가 있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관객은 존재나 물체의 일부만을 아는 것에 그치게 되고, 이는 수작업으로 그려진 다양한 요소에 부가적으로 밀도와 깊이를 부여한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자신이 움직이는 그림보다, 그려진 움직임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독은 그림의 상세함보다는 움직임에 아주 큰 비중(문학과 비교해 영화가 가지는 여러 특징 중 하나이다)을 둔다.



● 애니메이션의 음향

애니메이션 영화 속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된다. «손 없는 소녀»의 그림이 가지는 스케치 같은 특징은 음향에 많은 자리를 남겨 둔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혼자서 그림 작업을 마친 후에 촬영했고, 그 이후에 음악가 올리비에 멜라노와 함께 배경음악을 작업했다. 음향효과 전문가와 배우가 인물에 목소리를 빌려주었다. 소녀의 길고 긴 여정에 음악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음악은 순환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등장하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감이 도는 순간에 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배우(아나이스 드루스티에, 제레미 엘카임, 필립 로덴바흐 등)가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그려진 인물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음색, 가벼운 억양 그리고 호흡까지도 인물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소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림이 미완성으로 남은 만큼, 소리가 빈자리를 메우고, 감각(물소리, 부딪치는



● 몸과 배경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영화가 가지는 독창적인 미학은 그가 만들어낸 몸과 배경이 복잡하게 뒤얽힌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물은 집, 성, 혹은 풍경과 같은 배경을 통과하고, 이때 인물도 배경에 의해 통과된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그림은 스케치와 같다. 인물의 몸은 거의 색이 다 채워지지도 않고, 디테일도 부족하다. 단순한 선 몇 개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감독에게는 그림의 상세함보다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인물은 투명해 보이고, 인물의 뒤로 그가 지나는 풍경이 비춰 보인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원근법과 배경 선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인물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인물의 흔적도 그가 지나는 풍경과 마찬가지로, 변형, 이동, 늘어짐을 겪는다. 이러한 잦은 변신이 영화에 판타지적인 면에 기여한다.

● 영화 정보

손 없는 소녀

프랑스 | 2016 | 76분

감독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시나리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동명의 그림형제
동화(1812)와 이를 각색한
연출가 올리비에 피의
극작품(소녀, 악마 그리고
방앗간, 1995)에 기반을 둔
그림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음악

올리비에 멜라노

편집

잔티 미나시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목소리 출연

아나이스 드무스티에

소녀

올리비에 브로슈

아버지

프랑수아즈 르브윙

어머니

필립 로덴바흐

악마

엘리나 뢰벤존

물의 여신

제레미 엘카임

왕자

사샤 부르도

정원사

더 알아보기

4 편의 영화

- «가구야 공주 이야기(2013)», 타카하타 이사오, DVD & Blu-ray, 스튜디오 지브리
- «사랑과 죽음의 노정(1969)», 존 휴스턴, DVD, 오프닝
- «이미지 게임(1936-1970)», 노먼 맥라렌, DVD, 레 필름 뒤 파라독스
- «파우스트(1926)»,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DVD & Blu-ray, 포텐킨 필름즈

2 권의 서적

- 브루노 베텔하임, 『요정이야기의 정신분석학(1976)』, Pocket, 1999
- 클라리스 핀콜라 에스테스, 『늑대와 달리는 여인들』, Grasset, 1996

프랑스 협조 기관

문화부
국립 영화와 영상 센터
교육, 청소년, 체육부

발행 디렉터 : 프레데릭 브르댕

저작권 : 국립영화센터
시리즈 편집자 : 티에리 루나
편집장 : 카미유 몰라, 막심 베르너
문서 작성자 : 세바스티앙 롱스레이
포토 에디터 : 카프리치 출판사
감수 : 카프리치 출판사
그래픽 디자인 : 샤를로트 콜랭
디자인 및 제작 : 마프리치 출판사